

최명익 단편소설의 시간 고찰*

박종홍**

|| 차례 ||

1. 머리말
2. 시간 순서의 불일치와 정체성 탐구
3. 순환적 시간 의식과 비인간화 비판
4. 맺음말

【국문초록】

전행기에 발표된 최명익의 단편소설은 시간의 불일치 속에서 과거의 기억에 의거하는 회상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회상은 내적 회상, 외적 회상, 회상 속의 회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비중 높게 제시되고 있다. 미래의 기대에 따른 예상도 사용되고 있지만, 회상에 비해 분량이나 비중이 매우 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회상을 통해 주체의 각성을 야기함으로써 의식의 분열과 혼란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 표현에서 과거의 기억에 의거한 회상을 지배적으로 중시하면서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다른 소설가들의 작품과 변별되는 최명익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명익의 단편소설은 달력의 날짜와 시계의 시간 대신에 계절과 하루의 주기적 시간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거의 모든 작품들이 이렇게 계절과 하루의 주기적 시간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최명익 작품의 독자적 특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의 반복성에 상응하는 유추 반복 서술과 반복적 행위를 빈번하게 적절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최명익의 작품들은 회상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시간 표현에 따른 순환적 시간 의식과 이에 기반한 신화의 우주적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그러나 최명의 단편소설의 이러한 순환적 시간 의식과 우주적 시간이 복고 취향이나 현실도피 의식의 산물인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편협하고 단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영원을 지향함으로써 균등하게 분할되어 측정 가능한 시간의 통제 속에서 시간의 상품화에 따른 인간의 상품화를 야기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화를 진지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시간 불일치, 외적 회상, 내적 회상, 내적 예상, 유추반복서술, 순환적 시간 의식, 우주적 시간

I. 머리말

시간은 칸트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특수한 경험 양식이다. 그것은 어떠한 공간적 질서도 소여될 수 없는 인상이나 정서나 관념 등과 같은 내적 세계에 관여되기 때문에 공간보다 일반적인 경험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세계는 특히 시간의식을 고조시키고 인간은 시간에 과민하게 되었다. 근대 세계는 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혁신, 정치상의 혁명, 종교적인 개혁, 예술상의 부흥, 그리고 자본주의라 불리는 경제 혁명 등이 일어났던 시기였고 그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개념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¹⁾

근대 세계에서 시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듯이, 근대소설에서도 시간 표현은 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물론 서사의 세계는 언제나 시간적 세계이기는 하다. 시간은 서술적 방식으로 진술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이 되며, 서사는 시간 경험의 특징을 그리는 한에 있어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서술 기능의 구조적 동일성은 물론 모든 서술 작품들의 진리 주장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인간의 경험이 갖는 시간적 특성이라는 것

1) 한스·마이어휴, 『문학과 시간현상학』, 김준오 역, 심상사, 1979, 133-139면.

이다.”2)

최명익 소설의 연구에서 다른 연구는 비교적 풍성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하지만 시간 표현에 대한 개별적 연구 성과는 매우 빈약하다. 최명익 소설의 전반적 특성을 검토하면서 시간인식을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다루거나,³⁾ 시간과 공간을 통합적으로 다룬 것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⁴⁾ 김성진은 최명익의 <비오는 길>을 대상으로 근대적 시공간 체험이 그것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리하여 사적 시간 체험으로서의 ‘독서’와 타자의 사물화에 의거한 ‘골목길’의 공간 체험이 이상과 박태원의 소설과는 달리 식민지근대라는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체험을 보여준다는 점을 깊이 있게 밝힌다. 하지만 초기의 한 작품에 한정됨으로써 전형기 최명익 소설 전반에 그러한 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표 시기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유소정은 전형기 최명익의 단편소설뿐만 아니라 을유 해방 이후의 <섬월이>도 대상으로 삼아 시간의 불일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병렬적으로 혼용된 상태로 분석됨으로써 시간 표현 방식과 그것의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글쓰기라는 포괄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의 구성 원리를 다룬 작업을 찾아 볼 수 있다.⁵⁾ 김혜영은 기억, 죽음, 속도라는 세 가지 미적 장치의 분석을 통해 최명익 소설이 시간적 차이를 소설 내적 구성

- 2) 폴 리콕르,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이경래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9, 25면.
- 3) 차혜영, 『최명익 소설의 양식적 특성과 그 의미』, 『한국학론집』 제25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4, 221-229면.
- 4) 김성진,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시·공간 체험』, 『현대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12, 203-221면. 유소정, 『최명익 소설의 시간과 공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7, 1-99면.
- 5) 김혜영, 『최명익 소설의 글쓰기 방식 연구』,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제61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97, 21-36면.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최명익 단편소설의 시간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이재선은 우리의 소설 연구나 서사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서사와 시간의 관련성에 대한 규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시간 의식이나 시간관 등 주체적 시간에 대한 관심은 다소 있었지만, “허구 시간 내지 서사 시간 및 담론의 선형성으로서의 시간성에 대한 검토는 거의 부재 상태나 다름없다”⁶⁾라고 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서 본고에서는 최명익의 단편소설에서 시간 표현 방식과 이에 따른 시간 의식 및 그것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간의 순서에 중점을 두고서 시간의 불일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작품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이들 작품이 어떠한 시간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시간 표지와 인물의 행위를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파악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간 표현 방식과 시간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체계적으로 밝힐 것이다.

이때에 검토 대상은 전형기에 발표된 최명익의 단편소설로 한정한다.⁷⁾ 최명익은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집필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을유 해방 이후에 발표된 최명익의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에서는 세계관과 창작 방법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⁸⁾ 그러므로 두 시기의 작품들은 분리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남북 분단을 가져온 정치 이데올로기의 강한 영향 속에서 발표된 을유 해방이후의 작품들보다 전형기

6) 이재선, 『한국소설의 시간 서사학』, 『현대소설의 서사시학』, 학연사, 2002, 11면.

7) 최명익 창작집 『장삼이사』(을유문화사, 1947)에 수록된 전형기 발표 작품인 최명익의 단편소설 <비오는 길>, <무성격자>, <역설>, <심문>, <봄과 신작로>, <장삼이사> 6 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작품명과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8) 채호석, 『리얼리즘에의 도정-최명익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210면.

의 작품들이 최명익 소설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시간 순서의 불일치와 정체성 탐구

문학 특히 서사에서는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자연적 시간’보다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적 시간’을 중시한다. 사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적 시간과 달리 자연적 시간은 ‘시간 관계의 객관적 구조’에 의하여 정의되는 시간 개념으로 인간 상호간에 타당성을 띠고 있기에 공공생활을 지탱하는 시간이다. 자연적 시간은 논리적이고 명백하고 타당할지라도 심리적으로는 허위적이고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주관적 경험의 모호성과 복잡성을 배제함으로써, 인간 경험에 대하여 커다란 의의를 갖는 어떤 시간 특질도 배제해 버린다는 것이다.⁹⁾

그리하여 서사의 시간은 경험적 시간을 중시하면서 연대기적인 순차적 흐름을 깨뜨린다.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현재에서 시간을 건너 뛰어 다가올 미래가 먼저 제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사에서 이러한 시간 순서의 바뀔이 근대소설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서양의 고대 서사시인 <일리아드>에서부터 이러한 시간의 불일치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불일치로 변형되기 이전의 기본적 서사를 ‘일차 서사’(first narrative)라 부른다면,¹⁰⁾ 서사에서는 일차 서사뿐만 아니라 이차적 서사를 모두 포함한 시간 질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최명익의 단편소설에서 일차 서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¹¹⁾ 물론 이

9) 한스·마이어훅, 앞의 책, 32-38면.

10) Gér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Trans. Jane E. Lewi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p.48.

러한 작품들에서 이차적 서사를 포함한 서술되는 시간은 일차 서사에 비해 상당히 길다. 일차 서사에서 벗어나는 과거의 사건이 다양하게 삽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에서 시간 순서의 불일치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무성격자>의 시작과 종결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십 여일 전부터 아버지가 종시 자리에 눕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은지 이틀 되던 날 아침에 또 속히 내려 오라는 전보를 받은 정일이는 문주와 작별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찾아갔다.¹²⁾

② 문주가 죽었다는 운학의 전보를 받은 날 저녁에 만수 노인은 죽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는 말대로 하자면, 자기는 문주를 장사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일이는 아버지의 관을 맡았다.¹³⁾

인용문 ①에서 보듯이 작품의 시작 시점은 주인공 정일이 애인 문주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간 때이다. 그런데 시작 부분에는 그러한 최초 사건의 원인이 되는 과거의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십 여일 전부터 아버지가 종시 자리에 눕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은” 시기인 과거가 있고, 그로부터 이틀 뒤로 “또 속히 고향으로 내려 오라는 전보를 받은” 더욱 가까운 과거

11) <비오는 길>(『조광』, 1936.4-5)이 여름 장마 동안의 기간이라면, <무성격자>(『조광』, 1937.9)는 늦은 봄 동안의 기간이다. 그리고 <역설>(『여성』, 1938.2-3)이 가을로 시작하여 겨울로 들어서기 전까지의 기간이라면, <봄과 신작로>(『조광』, 1939.1)는 봄으로 시작하여 봄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기간이다. 또한 <심문>(『문장』, 1939.6)(『문장』, 1941.4)은 주인공이 할빈으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지내는 초가을의 며칠 동안으로 짧은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면, <장삼이사>(『문장』, 1941.4)는 기차가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의 더욱 짧은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12) <무성격자>, 26면.

13) <무성격자>, 65면.

가 있다. 여기에서 작품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가를 알려면 편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날짜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인용문 ②에서 작품의 종결 시점도 그러하다. “문주가 죽었다는 운학의 전보를 받은 날 저녁”에 만수노인이 죽었다. 그러니까 만수노인의 죽은 날을 알기 위해서는 문주가 죽은 날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주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간 뒤에 고향으로 돌아간 날부터 얼마동안 위독한 만수노인을 간호를 하던 중에 그녀가 죽고 그날 저녁에 만수노인도 죽은 날까지가 일차 서사의 기간이란 것만 알 수 있다. 작품의 시작부터 종결 시점까지가 ‘늦은 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에 그 기간은 대략 한 달 이내일 것이다.¹⁴⁾

그런데 <무성격자>의 이러한 일차 서사에 이차적 서사로 과거의 사건이 다층적으로 삽입됨으로써 시간의 순서가 깨어지고 이야기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이처럼 어떤 주어진 순간에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일찍 일어난 사건을 그 후에 언급하는 것이 ‘회상’(analepsis)이고, 나중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환기시키거나 서술하는 모든 서사 작업이 ‘예상’(prolepsis)이다.¹⁵⁾

정일이는 창 밖으로 무거운 머리를 내밀고 얼굴에 거슬리는 바람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달리는 차체에 찢기운 대기의 단면이라는 생각에 머릿가락으로 귀 밑을 때리는 바람은 더욱 새롭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대학 시대인 어느

14) 작품의 시작과 종결은 모두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시작하여 과거로 끝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 시제가 문자 그대로 과거는 아니다. 허구 체제에서 서사의 단순과거는 과거를 상실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야기된 행동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구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은 과거가 아니다. 이야기를 과거에 두기 위해서는 이야기된 세계의 시제에 문헌의 제시나 고증과 같은, 진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다른 표지들을 추가해야만 한다. 폴 리콥르, 『시간과 이야기 2』, 김한식·이경래 옮김, 문학과학지성사, 2000, 137면.

15) 제라르 즈네프, 『서사담론』, 권택영 역, 교보문고, 1992, 30면.

때 지금 같이 창 밖을 내다보던 머리에서 새 맥고모가 휘 날아 버린 생각이 난다. 그 때는 지금 같이 눈을 감고 지나치기에는 모든 것이 아까운 시절이었다. 날아 가는 모자도, 탐내어 바라보던, 실새 없이 바뀌는 새로 새 풍경의 한 여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여름을 무모로 지낸 것이 삼사년 전의 일이 아닌가. 불과 삼사년 전인 학생 시대를 감상적으로 추억하기에는 아직 자존심이 선뜻 허락하지 않는 듯도 하지만 이 이삼 년간의 생활을 더욱이 문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존심도 날아 버린 맥고모 같이 썩을 대로 썩었다고 생각함이 솔직하지 않을까? 문주와의 관계! 문주를 중축으로 한 지금의 생활! 외아들이라는 것이 큰 자제나 같이 나이 삼십에 영석을 피우다 싶어하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들어가며 타 내어주는 어엿지 못한 돈으로 이렇듯 퇴폐적 생활을 하는 지금 전날의 자존심이 남아 있을 이도 없을 것이다.¹⁶⁾

인용문에서 정일은 두어 달 전에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다는 편지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회상 속에서 다시 대학 시절의 일을 회상한다. 그러니까 회상 속에서 다시 회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일은 삼사년 전의 대학 시절에 기차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새 맥고 모자를 잃어 버린 일을 기억하고, 그러한 기억을 통해 이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그 뒤의 삶을 되돌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상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의 자아 정체성의 근원이 그러한 몇 년 전의 과거에 있음을 말해준다.

그의 생각은 다시 임종이 가까운 아버지의 명상으로 돌아갔다. 칠순이 가까운 노인! 더욱이 오랜 병으로 살이 빠지고 피가 말은 아버지의 임종은 탈대로 다 탄 저 성냥개비의 불꽃이 꺼지 듯이 눈을 감고 마지막 연기 같이 숨지는 조용한 운명이 아닐까? 그가 스물이 넘도록 데릴사위 겸 머슴살이를 하다가 장인 장모가 죽고 지금은 늙은 마누라이지만 그 때는 아직 십 여살 밖에

16) <무성격자>, 34-35면.

안 된 코흘리는 계집애만을 데리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소작하던 농토를 떠나서 지금 사는 도시로 떠들어 올 때 농촌을 떠나게 된 그들에게는 다만 지게와 너덧 마리 씨암닭이 남았을 뿐이었고, 먼 길이었으므로 동구 밖까지 닭의 가리를 짊어졌던 지게에 대신 장래의 처를 짊어지고 닭의 가리는 술에 들고 와서 성밖 빈민굴 토막에 몸을 붙이고 지게 벌이로 시작하여 사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몇 십 만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 그의 내력이다. 말하자면 그의 일생은 오직 돈을 위하여 분망한 일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¹⁷⁾

그리고 인용문에서처럼 과거의 긴 시간 흐름이 과감한 시간 압축 속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사십 여 년에 해당하는 만수 노인의 처부 내력이 간략하게 요약되고 있다. 이렇게 긴 시간의 회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다른 최명익의 소설들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이러한 요약적 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만수노인의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욕망의 화신이라 부를 만큼 초인적 의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의 근원이 그러한 그의 과거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회상들은 모두 일차 서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 흐름이기에 ‘외적 회상’(external analepsis)이다. 외적 회상은 그것이 외적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본적인 일차 서사를 어떤 순간에도 방해하지 않는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17) <무성격자>, 50-51면.

코 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요즘 사진사는 술을 사랑하는 때가 있었다. 손이 떨려서 사진 수정에 실수가 많으므로 얼마 동안 술을 끊어 볼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장마에 손님이 없어서 그 역시 우울하게 지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병일이가 술을 사서 권하면 서너 잔 후에는 이내 유쾌해지는 것이었다.

오늘도 유쾌해진 사진사가 병일이에게 잔을 건네며,

「긴상, 밤에는 무엇으로 소일하시우-。」

하고 물었다.

전에는 사진사가 주어 섬기는 화제는 대부분이 사진사 자신의 내력과 생활에 관한 얘기로 자랑이었다. 혹시 도를 지나치는 그의 살림 내정 얘기에 간혹 미안히 생각되는 때가 있었으나 마음 놓고 들으며 웃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던 것이 이 며칠은 병일이의 술을 마시는 탓인지 사진사는 병일이의 생활을 화제로 삼으려는 것이 현저하였다.¹⁸⁾

<비오는 길>의 인용문에서 ‘병일’은 비를 피하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사진사 ‘이칠성’과의 일을 얼마 뒤에 되돌아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크게 두 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는 사진사가 병일에게 술을 사던 시간이고, 나중은 병일이 사진사에게 술을 사던 시간이다. 전자에서는 사진사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면, 후자에서는 병일의 생활에 개입하고 있다. 회상을 통해 병일은 이러한 변화를 깨닫고 그러한 만남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병일은 의식적으로 사진사와의 만남을 피해 다른 귀가 길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회상을 통해 그러한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병일은 사진사와의 만남을 통해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멸과 동경의 이중적 의식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만, 이러한 내적 회상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된다. 여기에서 회상은 과거의 사건에 그 당시에는 지니지 못했던 의미를 부여한다. 즉 사

18) <비오는 길>, 125-126면.

건이 지난 뒤에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바꾸는데, 애초에는 별 것이 아니었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처음 해석을 반박하고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병일의 이런 회상은 일차 서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내적 회상’(internal analepsis)이다. 이런 내적 회상의 시간은 일차 서사의 시간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일차 서사를 반복하거나 그것과 충돌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최명익의 작품에서는 이것들이 일차 서사의 단순한 반복도 아니고 서사 진행의 일관된 흐름을 깨트리지도 않는다. 그것은 과거를 향한 투시 행위에 의해서 과거가 다시 현재로 바뀔 수 있는 혼재된 모든 운동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외적 회상과 내적 회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기억의 혼란성과 복잡성에 상응한다.¹⁹⁾ 기억은 자연과 인간이 만든 역사적 기록보다 훨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기록 수단이다. 그러니까 기억의 복잡성과 혼란성은 기억된 사물들 간의 관계가 통일적, 순열적인 것이 아니라 산발적이고 역동적인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²⁰⁾ 이처럼 기억 속에서 되찾은 현실은 감각 속에서 예전보다 더 의미가 풍부하고, 더 믿을만한 것처럼 보인다. 기억은 미완성의 과거를 현재에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완성되어 일관성을 갖는다. “기억은 외부의 사물들 사이에 투영되어서, 그 곳에서 반쯤 객관적인 존재의 삶을 산다. 기억은 또한 사물들과 어우러져서 그들

19) 기억에는 즉각적인 기억인 ‘1차 기억 primary retention’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지만 반조에 의해 조금 후에 재생할 수 있는 인상들의 기록,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정신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두 단어 이상의 머리 문자를 무의식적으로 도치하는 현상과 타자칠 때의 실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전향적 기억 forward memory’이 있다. 커머드에 의하면 이 기억의 종류들 중에서 두 번 째의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의 기록이 서사 작품의 필수 도구이다. 프랭크 커머드, 『종말의 식과 인간적 시간』, 조초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3, 65-66면.

20) 한스·마이어휴, 앞의 책, 54면.

의 삶에 참여하고, 사물의 세계에서 재발견된다”²¹⁾라는 것이다.

최명익 소설에서는 이러한 기억에 의거한 회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 보다 지나간 시간에 순응하면서 과거를 행복한 시기로 반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소설은 이와 달리 의식의 부재를 통해 기억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저항하려는 망각을 중시한다. 이러한 망각은 현상의 포착에만 관심을 두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리하여 “사건의 원인을 제거한 다음, 사건의 현상적 측면을 부각시켜, 그것을 새롭고 우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글쓰기 방법을 취하”²²⁾게 한다. 박태원의 초기 소설도 기억에 의거하는 회상을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과거를 긍정하는 최명익의 소설과 달리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체험이 수시로 병치되고 혼용됨으로써 시간의 공간화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몽타주와 오버 랩 기법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문장의 전후를 참조하여 스토리의 흐름을 재구성하게”²³⁾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명익 단편소설에서 미래의 기대에 의거하는 예상도 물론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회상에 비해 예상의 비중과 분량은 매우 적다. 일인칭 소설인 <심문>과 <장삼이사>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일인칭 소설은 회고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기에 예상에 잘 부합하는 서사이다. 즈네뜨에 의하면, ‘일인칭’ 서사는 어떤 경우보다도 예상에 잘 부합된다. 일인칭 서사의 회고적 인물은 서술자로서 미래를 암시하는 권위를 지니며 특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²⁴⁾

21) 조르즈 뵈레, 『인간의 시간』, 김기봉 외 옮김,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267면.

22) 김혜영, 『한국 모더니즘소설의 글쓰기 방법 연구-시간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00, 60면.

23) 강상희, 『한국 모더니즘 소설론』, 문예출판사, 1999, 147면.

24) 제라르 즈네뜨, 앞의 책, 56면.

① 할빈-

내 이번 여행은, 앞서도 한 말이지만 역시 전과 다름 없는 방랑이라 어떤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같이 우울한 여행일 줄은 몰랐다. 가는 차 중에서 일종의 모험이니 무서운 숙명과의 음모니 하여 즐겨 꾸민 망상이 아니었고, 어김 없이 들어 맞는 예감이었던 것이다.

물론 할빈서 이군을 만났고 그의 십년 풍상과 지금의 성공과 사업과 장차의 경륜을 듣고 보아 의지의 인 이군을 탄복하고 축하하는 바이지만, 나의 이 여행기는, 그런 건전하고 명량한 기록은 아니다. 내가 치우쳐 침울한 이야기만을 즐겨 한다거나 이야기로서의 소설적 흥미와 효과만을 탐내 그런 것은 아니다.

『이군의 성공담』은 이야기의 주인공 격인 「나」라는 나와는 별개의 것이 되고 말았으리만큼 이 할빈서 나는 나와 너무나 관련이 깊은 사건에 붙들리고 말았으므로 우선 그 이야기를 할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여옥이의 이야기다.²⁵⁾

② 그런 신경의 착각일까, 웬 까닭인지 내 머리 속에는 금방 번기 속에 머리를 쳐 박고 입에서 선지피를 철철 흘리는 그 여자의 환상이 선히 떠 오르는 것이었다. 따져 보면 웬 까닭이랄 것도 없이 아까 「심심하게 않게 잘 놀았다」는 그들의 허잡것 없는 주정의 암시로 그렇겠지만 또 그러고 나야 남의 일이라 잔인한 호기심으로 즐겨 이런 환상도 꾸미게 되는 것이겠지만, 설마 그 여인이야 제 목숨인데 그만 암시로 혀를 꿇을 이가 있나 하면서도 웬 까닭인지 머리 속에 선한 그 환상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이나 아까 입술을 옥물고 웃어 보이던 그 눈을 생각하면 역력히 죽을 수 있는 때진 결심을 보여 준 것만 같아서 더욱 마음이 초조해지고 금시에 뛰어 가서 열어 보고 안 열리면 문을 깨뜨리고라도 보고 싶은 충동에 몸까지 들떡거리기도 하는 것이었다.²⁶⁾

25) <심문>, 156-157면.

26) <장삼이사>, 231-232면.

<심문>의 인용문 ①에서는 서술자 ‘나’가 작가적 존재로 노골적으로 나서서 미래의 일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나’가 할빈에서 성공한 친구 ‘이군’을 만나러 갔지만 실상 과거의 애인인 여옥을 만나고 그녀의 비극적 종말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①에서의 이런 미리 알림은 예측이라기보다는 예언이라 할 수 있다. 미래가 기대대로 논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벗어난 일이 알려준 대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측은 몇몇 선행하는 사건들이나 동시에 발생하는 조건들이 일단 알려지고 사건의 추론 과정의 대전제를 이루는 보편적 가설들이 진술되고 검증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언과 예측은 완전히 구분된다.²⁷⁾

<장삼이사>의 인용문 ②에서도 서술자인 ‘나’가 기차의 객석에 마주 앉았던 여자의 비극적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도망치다 잡혀 온 창녀로 포주에게 심한 모욕을 받고 심지어 뺨까지 맞았기에 ‘나’는 그녀가 자살할 것이라 우려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①에서와 달리 예상으로 제시된 그러한 기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체험을 통한 확인으로 바로 깨어지고 있다. 허를 깨물고 자살할지 모른다고 추측했던 여자가 바로 화장을 고친 뒤에 당장에 직업적인 추파로 호의를 표할 듯한 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대가 어긋나는 ‘반전’(peripeteia)을 보여준다.²⁸⁾

①의 예상도 그러하듯이 ②의 예상도 일차 서사의 시간 범위 내에서 이

27) 폴 리콕르, 『시간과 이야기 2』, 앞의 책, 232-233면.

28) 반전은 우리가 결말을 신뢰하는 심리에 의존한다. 반전은 조화가 뒤따르는 무효화이다. 우리의 기대가 어긋남으로써 느끼는 흥미는 예상치 않은 경로를 통해 발견이나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우리의 욕구와 분명히 관계가 있다. 반전이 대담할수록 더욱 우리는 작품이 우리의 현실 감각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준다고 더욱 확실하게 느낄 것이다. 이러한 반전이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작품의 범위를 조정한다. 다시 말해서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에서 반전은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프랭크 커머드, 앞의 책, 31면.

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둘 다 ‘내적 예상’(internal prolepsis)이다. 내적 예상이 사용되는 일차 서사에서 시간의 흐름은 예상이 아닌 마지막 장면에 의해 확실히 마감된다. 둘 다 내적 예상이지만 하나는 예언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측에 의한 것이듯이 그 기능은 매우 다르다. ①은 단순히 결말의 비극적 죽음을 강조해 주는 부가적 기능에 국한되고 있다면, ②는 반전을 통해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는 본질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문>에서는 회상도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 <장삼이사>에서는 회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장삼이사>는 전형기 최명익의 단편소설 중에서 예외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명익의 단편소설에서는 특히 회상을 통한 시간의 변형이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기억에 의거하는 회상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회상의 방식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현재의 체험과 미래의 기대보다 과거의 기억을 중시하여 회상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회상을 통해 분열되고 혼란스럽던 자아가 일체감을 얻고 있다.²⁹⁾ 이것은 작가가 시간의 역행적 흐름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재인식하고 그것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현재의 자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모든 소설에서 회상이 시간 순서의 불일치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최명익의 단편소설에서는 그러한 회상이 작품의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이상과 박태원 같은 동시대 다른 소설가들의 작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명익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9) 시간의 양상과 자아의 양상과의 다음의 두 가지 문맥에서 생긴다. 첫째 그것은 ‘표면적 현재’라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며 둘째로 개인의 기억 구조 즉 그의 과거를 구성하는 관계들 속에서 나타난다. 한스·마이어훅, 앞의 책, 68면.

Ⅲ. 순환적 시간 의식과 비인간화 비판

전형기에 발표된 최명익의 단편소설에서 시간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이들 작품에서는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것을 선호하는 근대적 시간 관념의 산물인 년, 월, 일이란 달력의 날짜와 시계의 시간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이런 명확한 시간 표지 대신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절과 하루의 어떤 때로 모호하게 시간을 나타낸다.

① 그 길은 여름 날 새벽에 바자개 뜨는 햇빛도 서편 집 추녀 밑에 간신히 한뼘 넓이나 바칠까 말까 하게 좁은 길들 사이에 두고 작은 집들이, 서로 등을 부빌듯이 총총히 들어 박힌 골목이다.³⁰⁾

② 늦은 봄 빛을 함빡 쓰고 있는 붉은 정거장 지붕의 진한 그림자가 예각으로 비껴 있는 처마 아래에는 연으로 만든 인형같은 역부들이 보이고 천장 없는 빈 플랫폼 저편에 빛나는 궤도가 몇 번인가 흘러갔다.³¹⁾

③ 아카시아 한 가지의 그림자 레쓰 문장 위에 금실금실 설레이고 바람 새에 덜컹거리는 유리창 밖의 아침 하늘은 맑은 가을 빛이다. 아침 저녁 절계를 다투는 이즈음 어느덧 앙상해진 나뭇가지 그림자의 무늬 같이 흰 레쓰 문장은 별로 얇고 나무도 가볍게 흔들린다.³²⁾

인용문 ①의 <비오는 길>에서는 ‘여름’, ②의 <무성격자>에서는 ‘늦은 봄’, ③의 <역설>에서는 ‘가을’이란 시간 표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달력의 날짜 대신에 계절을 통해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 뿐만 아니라 <심문>에서는 ‘가을’, <봄과 신작로>에

30) <비오는 길>, 96면.

31) <무성격자>, 30면.

32) <역설>, 2면.

서는 ‘봄’이란 시간 표지가 제시되고 있다.³³⁾

그런데 ‘늦은 봄’이란 계절의 시간 표지와 ‘오월’이란 달력의 시간 표지는 많이 다르다. 오월은 누구에게나 오월이지만 늦은 봄은 그렇지 않다. 북반구의 사람들에게는 오월이 늦은 봄이지만 남반구의 사람들에게는 오월이 늦은 가을이 된다. 서반구와 동반구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오월이 조금 계절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봄은 봄이고 가을은 가을이다. 계절의 시간은 이처럼 항상성을 지니기에 영원의 시간에 연결되기도 한다.

그리고 최명익의 단편소설에서는 하루 중의 시간도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①의 ‘새벽’과 ③의 ‘아침’처럼 모호한 범위의 주기적인 시간 표지가 사용되고 있다. 계절의 경우가 그러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아침은 아침이고, 저녁은 저녁이다. 낮과 밤이란 시간 표지도 마찬가지이다. 하루 중의 시간은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에도 정확해야 한다. “하루는 추상적인 단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씬에 상응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시간’인 세계에 상응하는 길”³⁴⁾로 하루에서 ‘지금’이란 어떤 일을 하는 지금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지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작품에서는 하루의 정확한 시간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최명익의 단편소설에서는 달력의 날짜가 부재하고 시계의 시간도 부재한다. 범위가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확한 시간 대신에 모호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순환적 시간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달력과 시계의 시간이란 객관적 시간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33) <무성격자>와 <심문>에서는 작품의 배경 시간이 되는 이런 계절 외에도 다른 계절이 표시되기도 한다. 주인공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성 인물과의 추억을 말해주고 있는 때가 그러하다. <무성격자>에서는 ‘정일’이 애인 ‘문주’를 만난 때가 ‘지난 가을’로 나타나고 있고, <심문>에서는 ‘명일’이 애인 ‘여옥’과 헤어진 때가 ‘지난 봄’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폴 리콥트, 『시간과 이야기 1』, 앞의 책, 144면.

다. 이런 점은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최명익 작품의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작품에서 시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① 지금 정일이가 차창으로 내다보는 플랜휴에 고매 문주를 따라 내려던 정일이는 여기서 문주가 돌아 갈 어긋나는 차를 기다리는 삼분도 안 되는 동안에 여러 번 시계를 끄내 본 모양이었다. 몇 번째인가 또 시계를 끄냈을 때 히쓰테릭한 문주의 웃음 소리에 머엉하니 바라보는 정일이가 더욱 우습다는 듯이, 시계 그만 보시고 어서 차에 오르세요 저 혼자 기다릴게요, 하는 문주의 말에 비로소 문주가 웃는 까닭을 알고 정일이는 몇 분이 남았다고 채 따지지도 못한 시계를 집어 넣으며, 자연 마음이 급해서 하였던 것이다. 그 때도 지금과 같이 이 분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정일이는 자기의 마음과 시선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는 문주의 걸을 일각이라도 속히 떠나고 싶은 생각에 자조 시계를 끄내게 되었던 것이다.³⁵⁾

② 나는 미안한 생각에 따라 들어가면 여옥이는 침대에 엎대서 작은 팔목 시계의 뒷딱지를 떼 들고 속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시계의 고장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옥이는 혼자 심심하거나 나와 말다툼이라도 하여 화가 나는 때면 언제나 시계 속을 들여다 보거나 귀에 붙이고 소리를 듣거나 하는 버릇이 있었다. 여옥이의 그러한 버릇에 나는 한 끝 요망스러운 잔인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어린애 장난 같이 귀엽기도 하여 들여다 보고, 그 산뜻한 손 끝으로 귀에 대 주는 시계 소리를 번갈아 들어가며 한나절을 보내는 때도 있었다. 그런 때 혹시 여옥이는 마음이 짜라서 하는 말로, 언젠가는 사내 가슴에 귀를 붙이고 밤 새도록 심장의 고동을 듣고 나서, 머리가 옥신거려 사흘이나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³⁶⁾

35) <무성격자>, 32-33면.

36) <심문>, 151-152면.

인용문 ①과 ②에서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①에서 시계는 정일의 문주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②에서는 시계가 여옥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녀가 시계 속을 본다든지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상대 남자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집요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적 삶의 규칙적이고 정확한 규율을 조성하기 위한 시계 본연의 역할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계에 대한 이런 태도를 통해 근대 세계의 객관적 시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시계는 수도승들이 예배의 일과를 보다 독실하게 준수할 필요성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18세기 말이 되면서 시계가 사회에 보편적으로 보급됨으로써 산업화의 진행 속에서 그것은 인간의 활동을 통제하는 본격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자본의 발전과 더불어 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어가는 한편으로 노동 인구의 과잉으로 인해 고용이 제한을 받으면서 시간은 기회 비용이고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다.³⁷⁾

그런데 ①에서 시계에 대한 정일의 그러한 행동은 일회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②에서 여옥의 시계에 대한 행동은 반복적인 것이다. ‘때마다’라는 어휘를 통해 반복적인 사건을 한 번에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 것을 한 번에 표현하면서 여옥의 개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① 오히려 문주는 그의 건강이 가장 좋고 자기 생명에 자신을 가지는 때에 자기가 같이 죽어 줄 사람인 것을 기뻐하는 것이었다. 문주가 그 말을 할 때에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하여 한다거나 자신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마음에 사모쳐서 나오는 말이 분명하다고 할 밖에 없었

37)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 숲, 1997, 110면.

다. 그 말을 하는 문주의 눈이 그렇게 빛나고 그 조개인 입술이 떨리고 무서운 힘으로 껴 안으며 하는 말이라 때마다 문주와 같이 감격할 밖에 없고 그 때 만일 문주가 같이 죽어 달라면 죽었을 것이다.³⁸⁾

②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때나 감은 때나 신음 소리와 같이 잠고대와 같이 죽고 싶지 않다고 부르짖는 아버지의 말을 들 때마다 정일이는 자연히 찌푸리지는 얼굴을 어쩔 수 없었다. 더욱이 밖에 나갔다가 병실에 들어 설 때마다 얼굴이 각 끼었는 듯한 주검의 냄새를 깨달으며 아버지의 베개 머리에서 그 말을 들을 때에는 말할 수 없이 불쾌하여지고, 사람은 이다지도 동물적인가? 하고 고향을 지르고 싶은 발작적 충동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³⁹⁾

<무성격자>의 인용문①과 ②에서도 ‘때마다’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반복하는 사건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 인물의 대척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사건은 단순히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혹은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것들이 정확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반복은 정신적 구조물로 발생시마다 서로 공통되는 어떤 요소만을 간직하기 위해 그 자체에 특수하게 부가되는 것들을 배제시켜 버린다. 매번 똑같이 일어나는 반복은 추상화 된 사실이다. 이처럼 긴 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 일어났던 사건을 한 번에 서술하는 것을 ‘유추 반복 서술’⁴⁰⁾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최명익의 단편소설은 이런 유추 반복 서술을 통해 이미 습관화된 인물의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시작과 끝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

38) <무성격자>, 39면.

39) <무성격자>, 54면.

40) 즈네뜨는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 것을 한 번에 표현하는 서술을 ‘유추 반복 서술’(iterative narrative)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유추 반복 서술이 감당하는 시간의 흐름이 그것이 삽입된 장면의 시간적 흐름보다 훨씬 길다. 이런 유형의 첨가하는 설명을 ‘외적 유추 반복’(external iterations)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달리 광범위한 시간의 흐름을 규정하기보다 장면 그 자체 안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경우를 ‘내적 유추 반복’(internal iterations)라 한다. 제라르 즈네뜨, 앞의 책, 108-109면.

의 순환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문주가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아버지는 초인적이라 할 정도로 강한 의지로 생명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처럼 한 번에 서술되는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한 인간의 본질적 측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비오는 길>에서 병일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숙집과 회사 사이의 골목길을 방관적 시선 속에서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왕래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비오는 길>에는 그런 점에서 시간의 흐름이 없다. 있다면 간격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계적 반복과 순환으로서의 시간은 매일 동일한 길을 걷는 공간 체험과 연결되어 형상화된다”⁴¹⁾라는 것이다.

또한 <역설>에서는 문일이 집과 신작로 사이의 산책길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일이 매일 조금도 쉬지 않고 방안에 앉아 시계추처럼 좌우로 반복해서 몸을 흔들고 있는 상동병자의 허망한 반복적 행위와 상응하여 순환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최명익 단편소설에서의 우주 반복 서술과 강박적인 반복적 행위는 하루와 계절이 끊임없이 바뀌고 다시 돌아오는 우주 운동의 순환성을 나타내고 있다.⁴²⁾

이처럼 최명익의 단편소설은 회상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증시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순환적 시간 의식을 통해 영원을 지향하는 신화의 우주적 시간을 나타낸다.⁴³⁾ 수평적으로 진행되면서 변화와 진보를 나

41) 김성진, 앞의 글, 214면.

42) <장삼이사>에서는 회상을 통한 시간의 불일치도 나타나지 않듯이 주기적 시간 표지와 반복적 행위를 통한 순환적 시간 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점이 순환적 시간 의식의 이탈을 나타내는가 하는 점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점은 을유 해방 이후의 최명익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43) 니콜라스 베르자예프(Nicholas Berdyaev)에 의하면, 시간을 기술 할 수 있는 세 개의 기본적인 범주와 상징이 있다. 첫째로 우주적 시간은 원으로 상징될 수 있으며 사물의 무궁한 반복을 가리킨다. 즉 밤과 낮의 교체, 계절의 바뀔, 출생과 성장과 사망의 순환 등 한 마디로 경험의 순환적 특성을 가리킨다. 둘째로 역사적 시간은 수평선

타내는 역사적 시간과 달리 우주적 시간은 무궁한 반복을 통해 원으로 순환되며 변화와 진보를 부정한다. 영원을 지향하는 이러한 순환적 시간의식은 삶의 직선적인 진행을 무시하고 주기적인 반복을 중시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과거로 회귀하거나 당대의 현실에 눈을 감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최명익 단편소설의 이런 우주적 시간이 소박한 복고 취향이나 현실 도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대 세계에서 시간은 항상 확대해가는 시장의 상품들을 생산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시간만이 모든 상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때문에 시간 그 자체가 상품화되었고, 마침내 인간 존재도 상품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간 소외에 따른 비인간화를 비판하고자 전형기 최명익의 단편소설은 신화의 우주적 시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치의 신화 숭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화는 파괴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반이성적 힘을 동원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원적으로 신화는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그러한 야만적인 힘들을 교화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둔 것이다. 그것은 주기적 패턴을 통해 인간 존재의 영원한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의 추구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고, 존재적 불안감과 긴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영원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재인식함으로써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자연과 사회가 인간조건에 부여하는 불가피한 한계들을 받아들인다. “신화의 세계는 조이스, 지드, 만, 까뮈, 그리고 아마 로렌스까지 이런 작가들에 의해서 재발견되었는데, 이 재발견은 그

으로 상징되며 시간을 통한 국가와 문명과 종족들의 경과를 가리킨다. 셋째로 실존적 시간은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식으로 종교적이고 신비적 성질을 가진 시간을 가리킨다. 존 헨리 롤리, 『영소설과 시간의 세 종류』, 『현대소설의 이론』, 김병욱 편,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3, 475-486면.

자체가 하나의 인간주의적 힘임을 의미하고 있다”⁴⁴⁾라는 것이다.

4. 맺음말

전형기 최명익의 단편소설은 시간의 불일치 속에서 과거의 기억에 의거하는 회상을 중시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미래의 기대에 따른 예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들은 회상에 비해 분량이나 비중이 매우 약했다. 그러니까 회상은 내적 회상, 외적 회상, 회상 속의 회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통해 주체의 각성을 야기하고 의식의 분열과 혼란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모든 소설에서 과거의 기억에 따른 회상이 시간 순서의 불일치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최명익의 단편소설에서는 그러한 회상이 작품의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동시대 다른 소설가들의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명익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최명익의 단편소설은 측정 가능한 정확한 시간 표현의 산물인 달력의 날짜와 시계의 시간 대신에 계절과 하루의 어떤 때란 모호한 주기적 시간 표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점도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최명익 작품의 독자성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의 반복성에 상응하는 유추 반복 서술과 반복적 행위를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회상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시간 표현에 따른 순환적 시간 의식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적 시간 의식에 기반하여 영원을 추구하는 신화의 우주적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다.

44) 한스·마이어홀, 앞의 책, 121면.

그런데 최명익 단편소설의 회상 중시와 순환적 시간 의식이 소박한 복고 취향이나 현실도피 의식의 산물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편협하거나 단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영원을 지향함으로써 균등하게 분할되어 측정 가능한 시간의 통제 속에 인간을 상품화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화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명익은 1930년대 후반 혼란과 불안의 시기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회상과 순환적 시간 의식에 기반을 둔 우주적 시간에 의거하여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희, 『한국 모더니즘 소설론』, 문예출판사, 1999.
- 김성진,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시·공간 체험』, 『현대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12, 203-221면.
- 김윤식, 『최명익론』,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 김혜영, 『최명익 소설의 글쓰기 방식 연구』,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61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97, 21-36면.
- 김혜영, 『한국 모더니즘소설의 글쓰기 방법 연구-시간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00.
- 박종홍, 『최명익 소설의 공간 고찰-기차를 통한』, 『현대소설연구』 제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12, 403-428면.
- 유소정, 『최명익 소설의 시간과 공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7.
- 이재선, 『한국소설의 시간 서사학』, 『현대소설의 서사시학』, 학연사, 2002, 11-69면.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 숲, 1997.
- 진정석,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의 경험양상』, 『민족문화사연구』 제8호, 민족문화사연구소, 1995, 179-199면.
- 차혜영, 『최명익 소설의 양식적 특성과 그 의미』, 『한국학론집』 제25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4, 221-229면.
- 채호석, 『리얼리즘에의 도정-최명익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195-211면.
- 최혜실, 『1930년대 한국 심리소설 연구-최명익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 볼프강 클라인, 『언어와 시간』, 신수송 역, 역락, 2001.
- 존 헨리 롤리, 『영소설과 시간의 세 종류』, 『현대소설의 이론』, 김병욱 편,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3, 475-486면.
- 폴 리콕르,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이경래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9.
- 폴 리콕르, 『시간과 이야기 2』, 김한식·이경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0.
- 제라르 즈네뜨, 『서사담론』, 권택영 역, 교보문고, 1992.
- 조르즈 뵈레, 『인간의 시간』, 김기봉 외 옮김,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 프랭크 커머트,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 조초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3.
- 한스·마이여훅, 『문학과 시간현상학』, 김준오 역, 심상사, 1979.

Gé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Trans. Jane E. Lewi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Abstract

A study on the time in Choi Myung-Ik's short stories

Park, Jong-hong

In Choi Myung-Ik's short stories, he mainly uses analepsis based on past memories in anachronies. He uses predictions based future expectations but it is far less than analepsis. He, by using various and complex techniques such as internal analepsis, external analepsis, analepsis of analepsin, not only gradually firms up the identity of self in times of divisions and confusions, but he also furthers the understanding of others.

Also, they use signs of times such as semesters and daily routines, instead of calendar days and times on clocks. And they also appropriately use inference, repetition, and description that correspond to the repetitiveness of time. Therefore, they not only focus on analepsis, but also by expressing this routinely repeated time, they show the cosmic time of myth based on cyclical time consciousness.

This is not the product of the taste for retro, or escapism. They, instead of seeing the world in a narrow-minded sight, show a critical viewpoint for dehumanization of the modern capitalism society through showing how they express time and how they perceive time.

Key words : anachronies, internal analepsis, external analepsis, internal prolepsis, iterative narrative, cyclical time consciousness, cosmic time.

박종홍

소속: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휴대폰: 010-9812-3194

이메일: parkjh@ynu.ac.kr

이 논문은 2012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2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됨.